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DYING  
for an iPhone

# 아이폰을 위해 죽다

제니 첸, 마크 셸던, 폰 응아이 지음 | 정규식, 윤종석, 하남석, 홍명교 옮김

나눔북스

“아이폰을 위해 죽다”라는 말은 21세기의 상징적인 상품인 아이폰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삶과 노동조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일 것이다. 또 이 책을 통해 미국과 대만, 중국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무역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애플과 폭스콘이 노동 규율의 잔혹한 착취 시스템을 어떻게 국경을 초월하며 발전시켰는지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 붕괴에 대한 신랄한 해설이기도 하고, 많은 국가의 자본가가 노동자에 맞서 단결하면서 야기된 저항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동자들이 살아온 경험에 대해 세밀하고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하며, 글로벌한 전망에 있어서도 공공적 학술의 빛나는 사례다.”

- 엘리 프리드먼 Eli Friedman, 『China on Strike』 공동 편저자

“비판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엄밀한 연구를 통해 쓰인 이 책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공장인 폭스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절망적인 풍경, 비참한 결과,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고무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 잭 린촨 추 Jack Linchuan Qiu, 『Goodbye iSlave: A Manifesto for Digital Abolition』 저자

## Dying for an iPhone

Copyright Haymarket Books © 2020 by Jenny Chan, Mark Selden, Pun Ngai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articles or reviews.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21 by Narumbooks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Haymarket Books through BC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BC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자와 독점계약으로 나룸북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매끈한 신형 아이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이를 조립하는 사람들의 잔혹한 노동현장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심층적인 현장조사와 글로벌 전자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치러야 하는 인적 비용뿐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보여준다.”

- 니콜 아쇼프Nicole Aschoff, 『The Smartphone Society: Technology, Power, and Resistance in the New Gilded Age』 저자

“이 책은 폭스콘 산업 제국의 어둡고 사악한 공장 깊숙한 곳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생산의 심장부에서 피를 뿜어내는 중국 노동자계급의 진귀한 초상화를 제공한다.”

- 벤 타노프Ben Tarnoff, 『Logic Magazine』 공동 창립자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첨단 전자제품 제조업계에서의 착취와 노동자 투쟁에 깊이 뛰어들며 유명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을 폭로하는 이 책은 모두의 필독서다.”

- 바이샤오홍白晓红, 대만 저널리스트

“현대 자본주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실리콘밸리 신화에 반하는 이 조심스러운 연구서는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왜 그들의 성공을 혁신보다는 착취에 더 의존하는지 설명해준다.”

- 웬디 리우Wendy Liu, 『Abolish Silicon Valley: How to Liberate Technology from Capitalism』 저자

“우리가 의존하게 된 장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 사회, 환경의 대가,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가 이에 공모하는 과정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연구다.”

- 닉 홀드스톡Nick Holdstock, 『Chasing the Chinese Dream』 저자

“이 책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생산라인에서의 경험과 과학적 경영체계를 설명하는 장을 읽으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생산의 숨겨진 거처’로 이끌리던 때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그러한 예리한 설명과 분석을 가독성 있고 접근하기 쉽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제프리 허먼슨Jeffery Hermanson,  
국제노동조합교육연맹International Union Educational League

차례

추천의 말 \_5

표와 그림 목록 \_12

서문 \_15

1. 어느 자살 생존자 \_27
2. 폭스콘: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기업 \_42
3. 애플, 폭스콘을 만나다 \_62
4. 폭스콘의 관리 \_91
5. 학생 인터넷들의 목소리 \_122
6. 지옥의 업화業火 \_155
7. 도시를 배회하다 \_171
8. 꿈을 좇다 \_196
9. 환경 위기에 직면하다 \_216
10. 죽음으로 가는 길<sup>Dead Man Walking</sup> \_235
11. 파업과 저항 \_246
12.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_279

에필로그 \_305

감사의 말 \_325

옮긴이의 말 \_334

[부록1] 우리의 책 웹사이트 \_339

[부록2] 2010년 중국 폭스콘에서의 자살과 자살 시도 \_342

[부록3] 중국 현지 조사 \_344

[부록4] 세계 전역의 폭스콘 시설 \_348

주석 \_350

중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위해

## 표와 그림 목록

### 표

1.1 2010년 폭스콘의 기숙사 방 목록

2.1 1996~2018년 폭스콘 직원 수 및 매출

2.2 2018년 세계 17대 기술기업의 매출 및 수익

3.1 2009~2018년 아이폰 판매량

3.2 2010~2019년 애플 제품 및 서비스의 연간 매출

3.3 2013~2019년 애플의 지역별 연간 매출

5.1 2001~2018년 중국의 일반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 학생 수

5.2 2010년 허난성 정부의 지역별 폭스콘 채용 할당량

10.1 1996~2017년 중국 노동쟁의 중재 추이

12.1 2015~2018년 중국 지역별 노동력 이동

5.1 2001~2018년 중국의 일반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 학생 수

5.2 2011~2012년 쓰촨성 폭스콘의 학생 인턴십 채용

8.1 2008~2018년 폭스콘 직원의 성별 비율

10.1 1996~2017년 중국 노동쟁의 중재 추이

12.1 2008~2018년 중국 농민공의 연령별 추이

### 그림

2.1 1996~2018년 폭스콘 직원 수 및 매출

2.2 2018년 세계 17대 기술기업의 수익 및 매출

2.3 1974~2020년 중화권 내 폭스콘 시설

3.1 2009~2018년 아이폰 판매량

3.2 2010년 아이폰의 가치 분배

3.3 2010~2019년 애플 제품 및 서비스의 연간 매출

3.4 2013~2019년 애플의 지역별 연간 매출

4.1 2010년 폭스콘의 관리등급 체계

---

우리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다.  
폭스콘 직원과 같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활용은  
우리가 살아왔음을, 사는 동안 절망만을 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일 테다.

— 2010년 5월 27일, 한 중국 노동자의 블로그<sup>1)</sup>

---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sup>深圳</sup>의 폭스콘 전자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2010년 1월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언론에서 “자살 급행 열차<sup>suicide express</sup>”라고 명명된 보도들을 면밀하게 추적했다. 9번째 ‘폭스콘 투신자’가 자살한 5월 11일 이후 우리를 비롯한 몇몇 대학 연구진과 학생들은 더 많은 자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폭스콘과 중국 정부, 중화전국총공회<sup>中華全國總工會</sup>가 ‘연쇄 자살’을 끊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세대 농민공農民工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부모처럼 농사지으러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시에 집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노동의 의미 자체가 무너진다. 앞길은 막막해지고, 퇴로는 가로막힌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갇힌 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확대된다. 이처럼 사회 구조적 조건의 더 심원한 수준에 도달하면, 폭스콘 노동자들의 ‘퇴로 없음’ 심리를 이해하는 데 근접하게 된다.<sup>3)</sup>

2010년 12월까지 폭스콘 시설에서 18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중 1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살아남았다. 이들의 나이는 17세에서 25세까지 다양하며, 하나같이 농촌 출신 농민공으로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계급을 상징하는 이들이었다.<sup>4)</sup>

폭스콘의 모회사 홍하이정밀공업鴻海精密工業은 1974년 2월 대만의 귀타이밍郭台銘에 의해 설립됐다. 폭스콘Foxconn이라는 상표는 폭스콘이 여우fox 같은 속도로 커넥터connector를 생산하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암시한다. 40년간 폭스콘은 소규모 가공 공장에서 진화해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하이엔드급 전자제



땅에 놓인 큰 현수막에는 “피땀의 대가가 얼마인가?”. 오른쪽 상단 현수막에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2010년 5월 28일 타이베이에서 시위자들이 폭스콘에서 죽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을 놓고 있다.



품 제조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됐다. 폭스콘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에 200개 이상의 자회사와 지사를 두고 있다. 세계 전자제품 제조와 첨단기술을 주도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폭스콘의 포부는 세계 경제 및 기술의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목표와 조우하게 된다. 폭스콘은 빈틈없는 사업 관행, 합병과 인수, 특히 취득, 중국 정부와의 기민한 관계 형성 등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이 회사는 자신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단언한다. “홍하이 폭스콘의 지속적인 교육과 장기적인 투자, 지역의 세계화에 대한 헌신은 선도적인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홍하이 폭스콘이 중화권에서 최대 수출기업이자 체코의 두 번째 수출기업이 되게끔 했다.”<sup>5)</sup> 중국 내에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고용한 폭스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고용주다.<sup>6)</sup> 그러나 폭스콘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 우선순위에는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약속, 장기적인 국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을까?

중국은 폭스콘의 글로벌 기업 제국과 그 수익성의 중심지다. 2018년 폭스콘은 중국 전체 수입과 수출의 4.1%를 차지했으며,<sup>7)</sup> 매출은 1,750억 달러, 5조2,000억 대만달러를 넘어섰다.<sup>8)</sup> 회사 측 주장은 거창하다.

“폭스콘은 컴퓨터Computer, 정보통신Communications,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등 3C 부품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제조기업”이라는 것이다. 폭스콘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네트워크, 로봇·자동화에 집중하면서, 핵심 산업 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정교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한다.<sup>9)</sup> 실제 폭스콘은 지적재산권과 기술 개발의 원동력을 활용하여 저부가 가치 가공·제조에서 더욱 수익성 높은 사업과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른 이들이 이와 같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기업의 부흥이 100만 명의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문제로 돌아온다. 이 직원들 대다수는 농민공이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

폭스콘의 가장 큰 고객은 애플이다. 그러나 다른 세계적인 전자기업들도 있는데, 그중에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블랙베리, 시스코, 델, 후지쯔, GE, HP, IBM, 인텔, LG,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파나소닉, 필립스, 삼성, 소니, 도시바 등도 있고, 레노버와 화웨이, ZTE, 샤오미 등과 같은 중국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폭스콘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TV,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위Wi, 킨들, 프린터 등 무수한 디지털 기기

를 조립한다. 이 회사는 주로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동시에 자체적인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최첨단기술 개척자로서의 폭스콘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주요한 성장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력과 세계 경제, 지정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미래다.

애플과 폭스콘은 독립적인 기업이지만, 그들은 제품 개발과 엔지니어링 연구, 제조 공정, 물류,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애플은 미국에 기반을 둔 제조공장 일자리와 연구 시설을 모두 해외로 내보냈다.<sup>10)</sup> 애플은 아일랜드에 있는 매킨토시 컴퓨터 공장에 소수의 임직원만 남겨두었다. 이 아웃소싱은 애플의 성공이 국제 공급업체들과 노동자들, 특히 폭스콘과 중국 노동자들의 기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애플의 비결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폰과 그 아우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애플의 공동창업자이자 수십 년간 지배적 존재였던 스티브 잡스(Steve Jobs)(1955~2011)가 주도한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헤게모니적 위치에 올라선 가파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년 8월 고故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 CEO로 취임한 팀 쿡(Tim Cook)은 리앤더 카니(Leander Kahney) 기자로부터 “애플을 한 단계 끌어올린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

다.<sup>11)</sup>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 제품이라는 미국의 성공 스토리 그늘엔 제품을 생산하는 대다수 중국 노동자의 삶과 복지, 그리고 공장생활의 매개변수를 결정짓는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가 있다.

## 아이폰을 위해 죽다

“아이폰을 위해 죽다”라는 말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최신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신세대 노동자들은 아이폰과 다른 첨단제품 생산에서 속도와 정밀도에 대한 회사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애플의 성공은 질 좋은 제품을 빠른 속도로 생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우세한 지위를 고려할 때, 애플은 폭스콘과 그 직원들의 조건을 설정하는 데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10년 현재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의 독점적인 최종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기술 대기업의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한 주요한 도급업체이기도 하다.

폭스콘의 중국 내 시설들과 봉쇄된 기숙사 창문에 내걸린 자살 방지 그물은 연쇄 자살이 정점을 이룬 2010년 5월 말 이후,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도록 만든 절망과 비극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좀 더 인간

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의 집  
중적인 노력 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

## 중국에서의 집단 조사

2010년 여름, 우리는 중국, 대만, 홍콩의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선전, 상하이上海, 쿤산昆山, 항저우杭州, 난징南  
京, 텐진天津, 랑팡廊坊, 타이위안太原, 우한武漢 등 9개 도시  
에 자리한 폭스콘의 주요 제조 현장에서 잠입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폭스콘 생산의 숨겨진 거  
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와 세계적인 기술기  
업들이 초국가적 생산의 맥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  
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였다.

2011년 봄, 우리는 50만 명의 노동자가 밤낮으로 스  
마트폰과 태블릿, 그 밖에 여러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선전시의 폭스콘 제조기지로 돌아왔  
다. 우리는 두 개의 떠오르는 '애플 도시'인 허난河南성 정  
저우鄭州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각  
각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립하는 폭스콘의 새로운 거  
대 공장들은 오래된 공장들이 있던 해안 지역의 공장들  
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다. 자본의 움직임 추적하고 여  
러 방면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폭스콘이 지방정부의 강  
력한 지원으로 성출들을 가로질러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

며, 중국에만 40곳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24시간 고속생  
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확인했다.

2013년 12월, 폭스콘 창업자이자 CEO 귀타이밍과  
애플 CEO 팀 쿡에게 우리 연구가 밝혀낸 상태를 설명  
하고, 폭스콘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  
했다. 아울러 폭스콘 글로벌 사회환경책임위원회, 애플  
공급사 책임프로그램, 공정노동위원회FLA(애플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기관의 회원이었다)에 연락을  
취했다. 우리의 목적은 저임금과 적은 혜택, 강제적인  
초과근무와 기초적인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의 결여,  
10대 인턴 노동자 착취, 고용계약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  
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진의 압박 등  
우리 연구가 밝혀낸 문제들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묻는  
것이였다. 애플과 폭스콘은 파업, 화재, 폭발 사고, 노  
동자 자살 문제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기업 홍보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기업들을 노동 분야에서  
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논의의 장에 참여시키려 노력했  
으나, 자기 합리화와 진부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  
다.<sup>12)</sup>

이와 반대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훨씬 더 잘 반응했다. 2019년 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때에도 계속된 다년간의 현  
장 연구는 폭스콘 노동자, 인턴,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니

터링하는) 교사, 관리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와 광범위한 문서 연구로 보완했다. 이 책은 중국 노동자와 10대 인턴 학생들의 희망, 꿈, 생존을 위한 투쟁을 그들이 직접 그린 초상화인 인터뷰, 시, 노래, 공개서한,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보여준다.<sup>13)</sup>

### 글로벌 노동체제에 대한 도전

폭스콘은 “전 세계 전자제품 작업장”의 왕이다. 폭스콘은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자신은 물론 경쟁 생산업체에 발주한 가격과 수량을 결정짓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 특히 애플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지형에서 폭스콘은 애플을 비롯한 다른 브랜드 기업들이 설정한 품질과 속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노동착취 문제에 취약하다. 폭스콘뿐만 아니라 애플 및 다른 브랜드들도 노동자의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면 언론에 거명되어 비판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평판에 있어서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을 활용하여 노동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때로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기업이 법적·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sup>14)</sup> 특히 학생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 다수가 운동화,

티셔츠를 비롯한 대학 전용 상품과 관련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기에 기업의 노동착취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고 기꺼이 행동에 나선다.

개혁개방 이후 최근 수십 년간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중국은 수많은 노동자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고도로 논쟁적인 정치 현상이었다. 세계화된 전자제품 생산의 핵심 마디, 특히 새로운 모델 출시와 함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대규모 노동자 행동은 국가와 폭스콘,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노동자의 권익에 기여하기도 한다. 관료들은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에 노동자들과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영진이나 정부, 경찰과 맞닥뜨려야 하는 노동자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구속되거나 해고될 위험을 안고 있다.

중국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국가와 기업 사이의 권력 연합이 유지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일정 정도 개선됐지만,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언론, 관심을 보이는 대중의 주목과 반응을 끌어내려는 분쟁 해결의 법적·초법적 전술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2013년부터 시진핑 체제하에서 폭스콘 직원을 포함한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의 탄압에 항의하며 기

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들은 비정부기구와 인권변호사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학생과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싸웠다. 폭스콘과 그 밖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더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 1. 어느 자살 생존자

---

너무 절망적이어서 정신이 멍해졌어요.

— 텐위田玉, 17세의 자살 생존자<sup>1)</sup>

---

2010년 3월 17일 아침 8시경, 텐위가 폭스콘 공장 기숙사 4층에서 몸을 던졌다. 불과 약 한 달 전, 그는 홍콩과 인접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전자산업 발전의 첨단 거대도시 선전에 왔다. 1980년 선전시가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됐을 때에는 여전히 농촌 지역이 우세했지만, 이후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거치며 2010년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부상했다. 그중 광둥성과 다른 성에서 온 농민 공(유동인구로 알려진)의 숫자는 거의 800만 명에 달한다.<sup>2)</sup>

후베이湖北省의 한 농촌마을에서 온 텐위는 선전 폭스콘에 취직했다. 그가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전 세계 소



폭스콘 룡화龍華 공장단지 기숙사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텐위가 광둥성에 위치한 선전 룡화인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비자가 아이폰4와 1세대 아이패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텐위는 폭스콘 통합디지털제품 사업단<sup>IDPBG</sup>의 애플 생산라인에서 글라스 스크린의 품질 검사를 맡아 흠집 여부를 확인했다. 생산 주기가 점점 짧아져 작업 완료 시간이 빨라지고 초과근무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텐위와 동료들은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 텐위는 추락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세 곳의 척추와 네 곳의 고관절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아마도 이 공장에서의 첫 번째 직업이 그의 마지막 직업이 될 것이다.

### 폭스콘에서 살아남기

텐위와의 첫 만남은 2010년 7월 선전시 룡화인민병원에서 이뤄졌다. 그곳에서 텐위는 자살 시도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의 취약한 심신 상태를 알기에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방문이 텐위와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텐위와 침대맡을 지키던 그의 부모는 연구자들을 환영해줬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텐위와 신뢰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가정사와 폭스콘에 취직하게 된 상황, 조립라인에서 일하며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텐위의 사연은 중국 신세대 농민공이 대다수인 폭스콘 직원의 일반적인 상황과 많

은 공통점이 있음이 분명해졌다.

“저는 1993년 2월,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한때 농촌마을이었던 그곳은 현재 53만 명이 사는 라오허커우老河口시의 일부가 됐다. 허난성과 닿은 한강漢江 쪽에 자리하며, 1940년대 항일투쟁 과정에서 해방됐다. 토지 재분배 개혁에 이어 1950년대 중반에는 농업 생산이 집단화 노선으로 조직됐다. 1970년대 후반 ‘농가별생산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가 도입됐고, 1982년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농지가 개별 가구에 귀속됐다.

텐위는 “그 땅에서 우리 가족은 고작 1년에 1만5,000 위안을 벌 수 있었어요. 여섯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죠. 작은 땅덩이에서 옥수수과 밀을 경작하고 돼지와 닭 몇 마리를 길렀는데,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가족 농지로 그저 생계만 유지하려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어렵겠죠”라고 말했다.

텐위는 일찍이 부모가 중국 전역을 뒤덮은 이주노동물결에 동참하면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유수아동, 留守兒童)<sup>3)</sup>로 자랐다. 그의 부모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공장 노동자로서 가족을 부양할 때 할머니가 텐위를 키웠다. 농촌에 남겨진 6,100만 명에 달하는 다른 아이들처럼 텐위는 이웃 아이들과 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sup>4)</sup> 부모의 보살핌은 거의 없었다. 결국 텐위의 부모는 집을

고칠 충분한 돈을 번 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맏이인 텐위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나중에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남동생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sup>5)</sup>

## 농장에서 공장으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확대됐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저렴한 해외 수입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어닥치면서 농민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5년 농업세 폐지와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社會主義新農村 캠페인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설립 등의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년이 도시와 제조업 일자리로 떠나면서 가계 기반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어두워졌다. 농촌 협동조합 설립과 대안적인 개발 계획을 위한 산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진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수익성이 있는 비농업 일자리 기회는 거의 없었다.

중학교 졸업 후 지역 내 직업학교의 단기 과정을 마친 텐위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농촌 청년인 텐위와 또래들에게 있어 미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도시로 가는 것이었다. 2010년까지 텔레비전, 그리고 특히 인터넷과 이동통신기술로 상상만



했던 실제 도시생활의 창이 활짝 열렸다. 텐위는 이렇게 말했다. “저를 비롯해 제 또래 모든 청년이 도시에 가서 일도 하고 바깥세상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죠.”

춘절 연휴가 막 끝난 2010년 2월 초, 아버지가 일자를 찾던 텐위에게 500위안을 쥐여줬다. 또 집에 연락할 때 쓰라면서 중고 핸드폰을 건네며 안전하게 잘 지내라고 격려했다. “사촌이 시외버스터미널로 바래다줬어요.” 텐위는 도시로 떠나던 날 아침을 떠올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였어요. 버스에서 본 공단의 첫인상은 선전이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였죠.” 텐위는 회사 채용센터에 간 2월 8일을 떠올렸다. “오전 내내 줄을 섰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손가락을 대고 전자 리더기에 신분증을 스캔하고, 혈액 검사를 받아 건강검진 절차를 마쳤어요.” 그렇게 텐위는 취직을 했고, F9347140이라는 사원 번호를 부여받았다. 컬러로 출력된 폭스콘 핸드북도 받았는데, 여기에는 신입사원을 향한 낙관적인 글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향해 서두르세요. 멋진 삶을 추구하세요. 폭스콘에서 지식을 넓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은 여기서부터 미래로 이어집니다.”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어진 사원 오리엔테이

션에서 한 인사담당자가 텐위를 비롯한 신입사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오직 여러분 각각의 포부에 달려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오직 꿈만 있다면, 당신은 숫구쳐 오를 겁니다!”

인사담당자는 젊은 신입사원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인텔 회장 앤드루 그로브Andy Grove,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와 같은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실제 애플 못지않게 폭스콘 경영진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낭만적인 미래를 그리는 데 통달해 있었다.

“그리고는 저를 비롯한 수백 명의 신입사원이 회사 버스를 타고 폭스콘 채용센터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공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폭스콘 공장이 석양에 황금빛으로 물들었죠”라며 텐위는 당시를 회상했다.

## 폭스콘 내부

폭스콘 관리자들이 ‘캠퍼스’라고 즐겨 부르는 이 거대한 룡화단지의 생산과 일상생활은 밀집된 인구 환경에서 이뤄진다. 이 복합단지에는 복층으로 된 공장, 기숙사, 창고, 병원 두 곳, 도서관 두 곳, 서점, 유치원, 교육기관(거창하게도 폭스콘대학이라 불린다), 우체국, 2대의 소방차가 있는 소방서, TV 방송국, 은행, 축구장, 농구



장, 테니스장, 육상 트랙과 운동장, 수영장, 사이버 극장, 상점, 슈퍼마켓,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 심지어 웨딩드레스숍까지 있다. 컨테이너 트럭들과 지게차들이 실 새 없이 덜컹거리며, 애플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대기업을 위해 아이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돌아간다.

이 공장의 안내 책자에는 A에서 H까지 8개 구역, J와 L 2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이곳들은 다시 A1, A2, A3, J20, L6, L7 등으로 세분된다. 남쪽 정문에서 북쪽 정문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을 걸어야 하고, 동쪽 정문에서 서쪽 정문까지도 1시간이 걸린다. 텐위는 각 건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곳곳에 쓰인 영어 약자의 의미도 알지 못했다.

“출근 첫날 지각을 했어요. 공장이 너무 커서 길을 잃었거든요. 작업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라고 텐위는 말했다. 지각해서 혼났느냐고 물었지만, 그가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 자매인가, 이방인인가?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7시 20분 조회에 참석해요. 7시 40분에 일을 시작해서 11시에는 점심을 먹죠. 보통은 저녁식사도 거르고 오후 7시 40분까지 연장근무를 했어요.” 다른 노동자들처럼 텐위는 성수기에 ‘12시

간 표준근무’에 더해 매일 강제로 무급 근무면담에 참석했다. “점호 시작 20분 전에 생산라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그는 우리에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라, 매일 생산목표를 달성해라, 규율을 잘 지켜라’라고 독촉했죠.”

공장 안은 기계 소음만 가득한 채 침묵이 강요되는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다. 텐위는 “동료들끼리 친근하게 수다 떠는 건 쉬는 시간에도 거의 못 해요. 점심식사 땀 줄을 서고, 빠르게 먹어 치우죠”라고 덧붙였다. ‘애정으로 뭉친 따뜻한 가족’이라는 기업 이미지와는 달리, 폭스콘 노동자들은 고립과 고독을 자주 경험한다. 그중 어떤 상황은 노동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도로 보인다.

관리자나 공장장, 라인장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대화를 금지한다. 특히 조립라인은 생산 일정이 촉박할 때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운영된다. 밤새도록 전등이 환하게 들어오는 공장 안을 멀리서도 볼 수 있다. 텐위는 연장근무를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 텐위와 같은 신입사원들은 종종 ‘표준 작업 속도’를 지키는 노력과 무관하게 “너무 느리게 일한다”고 질타를 받는다.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회사의 요구를 강조하면서, 허용되는 불량률의 최대치를 낮게 세팅하기도 한다. 텐위는 자신이 작업한

스크린에서는 실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라 인장은 텐위가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도 거듭 책임을 돌렸다.

텐위에게는 한 달을 통틀어 매월 둘째 주에 오직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일밖에 없었다. 그러니 ‘공장 도시’가 겸비한 수영장이나 다른 오락 및 교육 시설을 이용할 여유 따위가 없었다. 텐위는 “3월이 되자 야간 근무조로 전환했어요. 제품 스크린을 검사할 때 눈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죠”라고 말했다.

### 기숙사 생활

폭스콘 직원들은 공장 인근이나 기숙사에 거주한다. 일터와 일상 공간은 24시간 내내 고속생산을 할 수 있도록 압축되어 있다. 기숙사 건물은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 없이 이 거대한 농민공 노동력을 ‘보관’한다. 싱글이든 기혼이든 각 노동자에게는 한 사람을 위한 작은 공간만이 할당된다. 이 ‘사적 공간’은 비좁은 공동생활 공간에 직접 만든 커튼을 쳐놓고 그 뒤에 자기만의 침대를 둔 것으로 구성돼 있다.

텐위의 룸메이트들은 6개의 사업팀과 7개의 생산부서에서 일한다. 각기 다른 부서와 다른 교대조에 일하는 사람들로 룸메이트가 배정되고, 저마다 다른 방언을 써서 교제 자체가 어렵다. 룸메이트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텐위는 “우리는 친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기숙사 방 기록부를 보여줬다.

표1.1 2010년 폭스콘의 기숙사 방 목록

	사원번호	사업단*	생산부서	기숙사 등록일
1	F9341932	NWInG	FKD	2010.01.29
2	F9450222	SHZBG	Mac BU (II)	2010.03.18
3	F9422526	CMMSG	AP (V)	2010.03.10
4	F9447733	CCPBG	TAMG TEAM	2009.07.27
5	F9425127	CMMSG	IPPD LX (I)	2010.03.10
6	F9347140(텐위)	iDPBG	DSPG DSD LCM	2010.02.08
7	F9341960	NWInG	FKD	2010.01.29
8	F9295026	PCEBG	ABD (II)	2009.12.21

**NWInG:** Net-Work Inter-Connection Business Group, 네트워크 연결제품 사업단

**SHZBG:** Super Hong Zhun Business Group(Super Precision Mechanical Business Group), 초정밀제품 사업단

**CMMSG:** Component Module Move Service Group, 정보시스템통합 및 서비스제품 사업단

**CCPBG:** Consumer and Computer Products Business Group, 소비자 및 컴퓨터제품 사업단

**iDPBG:** integrated Digital Product Business Group, 통합디지털제품 사업단

**PCEBG:** Personal Computing Electronics Business Group, 퍼스널컴퓨팅 전자제품 사업단

\* 노동자들은 사업단이나 생산부서의 영문 약어에 대해 회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같은 기숙사 방에서 8명의 어린 소녀들이 지냈지만, 텐위는 “우리는 서로를 낯설어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우리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이 이사 나갈 때 막 들어왔어요. 룸메이트 중 후베이성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텐위와 같은 후베이성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텐위의 아버지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설명했다. “텐위가 선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이따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죠.”

텐위가 말했다. “폭스콘에서는 외로울 때 가끔 온라인 채팅을 했어요.” 하지만 QQ 메신저에서 채팅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6)</sup> 먼 지방에서 온 신입사원의 경우 상호 신뢰나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절망의 축적

텐위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한 달 일하고 나서 월급 받는 날에 다른 사람들은 임금 직불카드를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폭스콘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필요한 현금 규모가 컸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에게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를 임금을 지급했다. 직불카드는 룽화단지 및 다른 폭스콘 공장의 24시간 ATM기기에서 입출금과 송금을 할 수 있는 은행카드다.

텐위는 라인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룽

화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룽화에 개인정보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텐위가 모르고 있던 사이 폭스콘의 관관<sup>7)</sup>단지 인사부가 텐위의 정보를 계속 갖고 있었고, 그가 실제로 일하는 룽화로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것이다. 룽화단지로 옮겨지기 전 텐위는 관관단지 채용센터에서 면접시험을 봤다. 이로 인해 폭스콘 룽화단지에서 텐위의 직불카드 계좌가 개설된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저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폭스콘 관관단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텐위가 말했다.

2007년 생산을 시작한 폭스콘 관관단지의 공장들은 2010년 초 1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낯선 공장단지에 들어선 텐위는 “C10, B1, B2 블록 등 건물 각 층을 떠돌며 월급 직불카드에 대해 물었어요”라고 떠올렸다. 매니저와 관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제대로 된 사무실을 찾기 위해 헤맨 보람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텐위는 자신의 직불카드에 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혼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만 했죠.”

텐위는 기본급 900위안과 시간 외 수당까지 더해 약 1,400위안에 달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 당시는 3월

중순이었다. 그렇게 선전에서 한 달 이상 지낸 후 텐위는 부모님이 준 돈을 모두 써버렸다. “돈을 빌릴 데가 없었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마침 핸드폰도 고장 나서 선전에 사는 사촌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텐위는 한계에 직면했다. 고단한 조립라인, 혹독한 공장 규율, 친구 하나 없는 기숙사, 가족과의 연락도 어려운 상태였다. 갖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심지어 회사마저 월급을 주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텐위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 한 번뿐인 삶

“너무 절망한 나머지 정신이 멍해졌어요.” 3월 17일 이른 아침, 텐위는 기숙사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12일 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 텐위는 하반신이 마비됐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반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결국 폭스콘은 “텐위와 가족들의 귀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의 일회성 보상을 했다. 이는 직원 자살 시도에 대한 책임을 봉합하고, 국내외 언론의 시야로부터 사안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였다. 텐위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같았다. 병원을 떠나면서 텐위는 100만 폭스콘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 보호에 관한 기업 및 정부의 책임에 대해 몇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을 우

리에게 남겼다.